“뛰어라 위대한 영광” 전남체전 대장정 마무리

郡 대회성적 전년比 10계단 상승…성취상·종합 2위 차지
봉사상 영광스포츠클럽…차기 개최지 장성군 대회기 전달도

영광군이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는 지난 17-20일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어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주제로 도내 22개 시·군 선수 임원 등 7천300여명이 참가, 24개 (정식 2개, 시범 1, 전시 1개) 종목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열린 폐회식은 차기 개최지인 장성군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특별공연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됐으며 전남체전 성적발표, 종합시상, 대회기 전달, 환송사, 폐회선언·성화소화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체전 종합성적으로는 1위인 순천시에 이어 영광군 2위, 여수시가 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대회 대비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시·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전년도 대비 10계단 상승한 영광군이 1위, 곡성군 2위, 진도군 3위를 수상했고 장려상은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특별자원봉사상은 영광스포츠클럽이 차지했다.

영광군이 17-20일 4일간 개최된 제63회 전남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영광군 제공〉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는 수영종목에서 4관왕을 차지한 여수시 구태환 선수, 육상 종목 대회신기록 3개를 기록한 목포시 허정연 선수가 선정됐다.

영광군은 테니스 종목에서 1위, 검도 2위, 궁도, 자전거, 축구에서 3위를 기록하고 8강 이상 진출한 종목은 골프, 농구, 바둑 등 9개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 종합순위 2위를 기록해 9회 전남도체육대회 3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 개최지의 자존심을 지켰다.

강종만 군수는 “전남체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돼 가슴이 벅차고 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보내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다”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덕분에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전남도민이 화합하며 희망을 만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남도체육회, 시·군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공무원·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신안통합추진委, 통합 인식개선 힘 모은다

3기 어울아카데미 27일-내달 25일까지 목포대 남악캠퍼스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양 시군의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22일 “목포·신안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공유하기 위해 제3기 어울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기 어울아카데미는 오는 27일부터 5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406호 강의실에서 진행하며, 5월4일은 가정의 달 행사로 휴강한다.

이번 어울아카데미는 세 번째 진행되는 강좌로써,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큰 주제로 총 네 강좌가 진행된다.

강좌는 ▲부산대 김기홍 명예교수의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의 ‘인구감소 시대의 서남권 발전전략’ ▲행정구역 통합방향과 전략에 대한 고찰 ▲정재원(목포시 지역경제과)의 ‘목포권 해상풍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곽행구 위원(전남연구원 초빙위원)의 ‘통합시 광역관광의 상생전략’ 등 네 강좌에서 질의와 토론이 펼쳐진다.

어울아카데미의 대부분 수강생은 신안 출신의 목포 거주 시민들로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로잡고, 현재 신안군민이 받는 혜택이 통합 후에도 변함없다는 점을 공유해 고향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주요 내용은 ▲신안 지역 농산물 사주기 ▲이·미용 봉사활동 ▲명절 귀향객을 위한 음료 봉사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 건의 ▲목포 쓰레기 처리장의 공동사용 건의 ▲목포축제 기간 신안 해산물 판매 부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상생사업을 발굴·실행·건의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목포·신안 행정구역 통합운동은 인구감소와 경제적 쇠락에 직면한 목포의 미래 후손들이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어울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2차 진행

매일 5천보씩 20일간 10만보 달성 시 상품권 지급

영암군은 22일 “오는 5월9일까지 어르신이 걷기로 건강을 돌보고 소정의 상품도 받아가는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2차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이번 챌린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5천보씩 20일간 10만보를 걸으면 달성된다.

영암군은 목표를 달성한 어르신에게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 ‘오늘 건강!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에 가입한 다음 ‘참여 하기’를 누르면 도전이 시작된다.

영암군은 챌린지 이벤트로 월출산 기찻묏길 맨발걷기(사진) 코스 등 지역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그동안 영암군의 다양한 걷기 챌린지로 워크온에 가입한 영암군민은 2천470명에 달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아가는 쏠쏠한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군, 버섯 관련 5건 특허 출원·지적 재산권 확보

전복 이용 동충하초 배양·버섯 추출물 화장료 등

완도군이 전복을 이용한 동충하초 배양 등 버섯 관련 5건의 특허 출원과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을 이용한 동충하초 배양 방법과 ‘전복 느타리버섯’이 함유된 ‘완복환’, ‘완복당’ 제조 방법, 버섯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버섯 추출물 함유 젤리 스틱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과 지적 재산권을 취득했다.

‘전복을 이용한 동충하초 배양 방법’은 전처리한 전복에 동충하초 균주의 포자 현탁액을 접종해 배양·생육하는 것으로 군은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로 농어가 소득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복 느타리버섯이 함유된 ‘완복환’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면역력 향상과 기력 보강에 효과가 있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완복당’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당뇨 예방과 당뇨 초기에 도움이 되며 버섯과 한약재를 혼합한 환 제형으로 섭취가 용이하다.

또 버섯과 비파나무 잎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도 만들었다.

버섯 추출물을 함유한 젤리 스틱은 버섯 추출물의 함유량을 높이고 지역 특산물인 전복 느타리버섯, 비파도 더해 맛과 영양까지 챙겼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 몽탄면 ‘제13회 몽탄면민의 날’ 개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퍼포먼스도 진행

무안군 몽탄면은 “최근 몽탄중학교 꿈여울관(체육관)에서 ‘제13회 몽탄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김산 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탄의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졌다.

기념식은 식전행사(풍악, 난타공연)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에서는 ▲장수상 박동숙 ▲효자효부상 설영희·서영춘 ▲화목상 김도식 ▲다문화가정상 인드리야니가 상을 수상했으며, 관내 학생 4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퍼포먼스가 진행돼 많은 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몽탄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이틀 전부터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임관택 몽탄면 번영회장은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화합하는 살기 좋은 몽탄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제13회 몽탄면민의 날 기념식을 준비해준 모든 면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화합해 한 뜻으로 행복한 몽탄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 자은도서 ‘2024 세계김밥페스타’ 팡파르

27-28일 뮤지엄파크서 K-김밥월드컵 진행

신안군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사진)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K-김밥월드컵’도 같이 진행된다. 최근 전국의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를 20팀이 가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24와 손잡고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선에 오른 20팀 중 대회 수상작은 편의점 김밥으로 만들어져 전국 6천600여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전 국민이 신안김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안에서 생산되는 김, 전복, 홍어, 톳, 대파, 양파 등의 식재료를 이용해 홍어카츠김밥, 소금김밥, 정원김밥, 바다김밥 등 6종 김밥을 자체 개발했으며, 행사 기간 2천원부터 7천원까지 착한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조리명장인 안유성 명장과 함께하는 ‘너 내 제자가 돼라!’와 식재료의 천국인 신안의 식재료를 무작위로 뽑아 즉석 김밥 만드는 Live 신안 김밥연구소, 세계 최고 밥플리에 찾기 등 다양한 푸드쇼도 진행한다.

자은도 해변에서 개최되는 김밥페스타는 피크닉가든과 김밥 만들기 체험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며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게 신안쌀, 땅콩강정, 말린톳 등 2천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일원에서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동시에 개최돼 두 개의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신안=양훈 기자

“초의선사 두륜산 녹차 만들러 오세요”

해남군, 내달 18일까지 녹차밭 사전 예약제로 개방

해남군은 22일 “오는 5월18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찾는 탐방객과 군민들에게 녹차밭을 개방하고, 녹차 체험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차 체험은 관리사무소에서 바구니를 제공받아 잎녹을 채취한 후 두륜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녹차 덖음 체험장에서 덖고 비비는 등 녹차 체험으로 나만의 녹차를 만들 수 있다.

1일 덖음 체험 가능 인원은 10명 이내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체험은 두륜산 도립공원 찾는 관람객과 군민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녹차 채엽 5천원, 덖음 체험비 5천원이다.

1인 1kg까지 녹차잎을 채취할 수 있고 덖음 체험 후 제공받은 포장지에 넣어 가져가면 된다.

또한 두륜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내에는 직접 만든 차를 마셔볼 수 있도록 음다실을 운영하며, 단체 신청객들이 원하는 경우 다도체험까지 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